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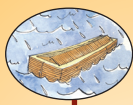
# CREATION

## TR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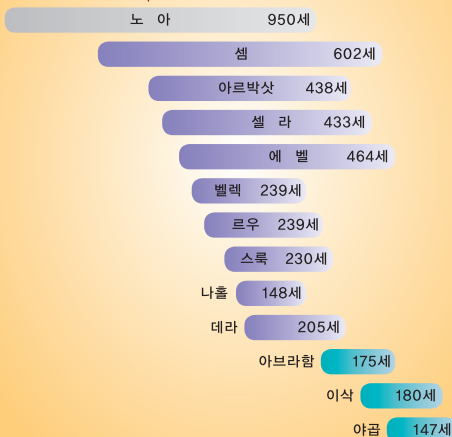


과연 성경에서 빙하시대에 살았었던 사람의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 빙하시대가 약 500년간 진행되었다고 보면 벨렉부터 야곱에까지 이른다. 그렇다면 이 족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빙하시대를 경험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지금의 빙하 흔적이 발견되는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눈과 추위의 영향은 분명 받았을 것이다. 빙하시대(Ice Age)란 단어는 18세기부터 등장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빙하시대란 정확한 단어를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빙하시대가 바벨탑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했고 수백 년간 지속되었다면,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 속에서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바벨탑 이후에 살면서 빙하시대에 살았음직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고난 받은 자의 대명사격인 '욥'이다. 욥기서는 창세기 1-11장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보이며, 등장인물들도 여러 정황상 벨렉보다는 나중이고 아브라함보다는 이전 사람으로 보인다. 이 시기로 보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다. 욥과 친구들은 대화 가운데 홍수심판을 암시하는 말들을 다른 어떤 기록보다 실감 있게 표현한다.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셈은 502년을 더 살았고, 바벨탑 사건을 벨렉이 태어난 해로 본다면 홍수 후 약 100년이므로 노아가족들이 모두 살아있을 때였다.



홍수



것을 알 수 있다. 즉 욥이 살았던 시기는 홍수와 바벨탑이 일어났을 때와 그리 멀지 않았으며 이 놀라운 사건을 당시 거기 있던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마치 한국에서 6.25전쟁을 겪었던 할아버지가 이를 경험하지 못한 손자에게 말해주는 만큼 실감이 났을 것이다.

욥과 등장인물들의 홍수심판에 대한 표현을 보자.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욥 12:15).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욥 9:5-6). 이 표현들은 평범한 자연과정이 아닌 땅들이 뒤집어지는 격변적 홍수 심판사건을 그리게 한다(창 9:11). 친구인 엘리

바스는 홍수 때 멸망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욥 22:15-17).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은 홍수의 시작과 과정을 더욱 분명히 그리게 한다(창 7:11).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욥 38: 8-9)

홍수가 마무리되고 있는 후기 과정도 언급된다. 욥이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름 같이”(욥 14:11)라는 표현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문빋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욥 38: 10-11)라는 말씀은 마치 홍수심판을 마무리하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무지개 언약을 그리게 한다.

빙하시대 당시 인물이라는 또 다른 증거로 욥이 고난 받을 때 “일곱 아들과 딸 셋을 두었으며 이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었던”(욥 1:2, 4) 정도로 보아 고난 당시 욥의 나이는 젊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욥은 고난 후 140년을 더 살았으며 아들 손자 4대를 더 보았다고 했다(욥 42: 16). 이는 욥이 200년 이상도 살았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이는 아브라함(170살)과 그의 아버지인 데라(205살)의 나이뿐 아니라, 바벨탑 직후에 살았던 벨렉(239살), 르우(239살), 스룩(230살)까지도 가능하다. 이 역시 추측된 욥의 나이와 족보를 비교하더라도 욥은 바벨탑 직후에 살았던 인물임을 지지한다.

욥은 바벨탑 사건 당시 언어의 혼잡을 통해 민족들이 흩어지고 있는 모습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자신이 보았음도 언급한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욥 12:23, 13:1). 이는 욥이 바벨탑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했음을 내포한다.

뿐만 아니라 욥기는 성경의 어떤 곳보다 추위, 얼음, 눈, 폭풍 등이 여러 번 언급되며, 당사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표현들이다. 이는 욥이 살았던 우스(Uz)는 성경에서 에돔 땅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우스는 욥기서 이외의 다른 구약성경에서 두 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노아 손자인 아람의 아들의 이름이며(창 10: 23), 아람은 아람사람(Aramaeans)의 조상이다. 또 다른 곳은 에돔(에서)의 후손 중에 우스가 등장하며(창 36:28), 나중에 예레미야애가에서 “우스 땅에 사는 에돔아”(애 4:41)로 언급된 것으로, 에돔은 사해 남부에 위치한다. 위의 둘은 모두 동일한 이름으로 보인다. “그는 동방 사람 중 가장 큰 자”(욥 1:3)라는 표현을 보아 욥의 거주지는 사해 남동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곳을 오늘날 겨울에도 눈이 오는 곳이 아니며 더욱이 얼음이 어는 곳은 더욱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추위에 대한 단어의 사용은 특이하지 않을 수 없다.

욥의 표현을 보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없어지나니”(욥 6:16-17);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욥 9:30);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욥 24:19). 대화의 끝 무렵에 등장한 엘리후 역시 동일하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욥 37:6);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열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욥 37:9). 엘리후가 물이 얼어서 물의 너비가 줄어든다는 표현은 마치 빙하가 육지에 쌓이며 바닷물의 수위가 낮아지는 과정을 보았기에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하나님의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 붙느니라”(욥 38:29-30). 물론 오늘날의 에돔 지역은 빙하시대에 해빙 전까지 눈이 덮였던 지역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른 추위를 경험했을 것이며, 특히 겨울에는 눈과 얼음을 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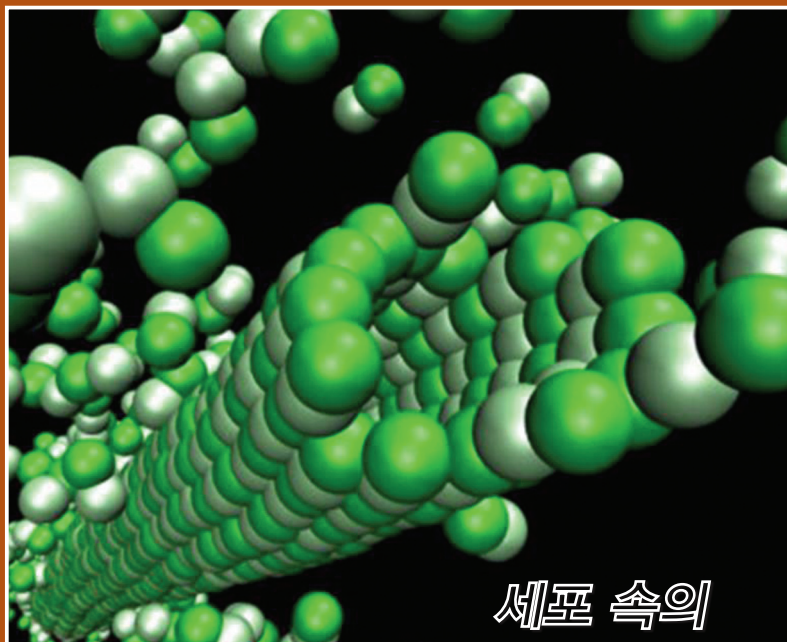
또한 욥의 소유물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그는 “양이 칠천 마리, 낙타가 삼천 마리, 소가 오백 쌍, 암나귀가 오백 마리”(욥 1:3)의 가축을 소유했는데 이는 일반 마리가 넘는 수이다. 오늘날 사해 남동부는 건조해서 이들을 방목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당시 바벨탑 직후의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이 많은 수의 가축을 관리할 사람도 부족하다. 그러나 빙하시대 동안에 내렸던 다량의 강우와 홍수 이후에 지속되었던 습윤사막의 환경을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빙하시대 당시의 모습을 그려보게 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성경 안에서 ‘공룡’으로 주목되는 세 가지 동물의 이름이 욥기에 모두 등장한다는 점이다. 탄닌(6:12), 리워야단(3:8; 41장), 베헤못(욥 40:15)이다. 이들이 오늘날 살고 있지 않는 동물임에도 하나님이나 등장인물들이 마치 자신들이 본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빙하시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멸종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빙하시대를 넘지 못했거나 그 직후 악화된 환경에서 서서히 멸종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공룡과 멸종’ 주제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욥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신비로운 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놓고 욥기를 자세히 접근해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메워주는 중요하고도 고마운 책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빙하시대의 이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 세포 속의 고속도로

과학자들은 세포 속에서도 잘 닦여진 길과 특수한 트럭들을 발견하였다.

세포 속의 도로들 중에 잘 연구된 도로가 한 가지 있는데 과학자들이 미세소관(微細小管, Microtubule)이라 부르는 관이 있다(위 그림). 가느다란 관이란 뜻이다. 관 지름이 약 25 nm(보통 사람 세포는 10,000 nm 정도임)인 이 미세소관은 세포의 전체적인 골격구조를 이루는 뼈대이기도 하고 물질들이 운반되는 도로로 사용 되기도 한다(그림 1). 마치 미개발지에 도로가 생기면 새로운 도시가 생겨 나듯이 이 미세소관이 뻗어 나가면 세포의 기관들도 그 길을 따라 이동하게 되어 세포의 모습이 바뀌기도 한다. 또, 이 미세소관은 세포가 분열 될 때 중앙에 늘어 서 있는 염색체들을 양쪽으로 잡아 당겨 두 개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여하기도 한다(그림 1).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작은 관은 길이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다. 필요에 따라 아주 짧은 시간에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부는 아예 없어지기도 한다.

이 세포 속의 도로인 미세소관 외벽을 따라 세포의 트럭에 해당하는 운반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 생체 트럭들은 관 안쪽에서 물이 흐르듯이 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관의 외벽을 타고 스스로 움직인다(그림 2). 생체 트럭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는 카이네신(Kinesin)과 다이네인(Dynein)이란 것들이 있는데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트럭처럼 에너지를 사용하여 다이내믹하게 움직인다. 또, 사람이 만든 고속도로는 같은 길 중앙에 금을 그어 주행 방향을 결정 했지만 미세소관은 둥근 관 모양으로 중



양선이 없다. 그래서인지, 이 생체 트럭들은 사람이 만든 트럭과 달리 일방통행을 한다. 카이네신은 미세소관이 길어지는 바깥 방향으로만 달리고, 반대로 다이네인은 짧아지는 원점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또 재미있는 것은 세포 속에도 주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구입하여 박스에 넣고 그 박스에 주소를 써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세포 속에도 그 생체 트럭에 의해 운반되는 물건들의 목적지가 표시되고 이렇게 표지가 달린 물건들만 분리하고 꾸러미를 만들어 특정 지역으로 옮겨진다. 예를 들면, 인슐린과 같이 세포 밖으로 내 보낼 것 따로, 세포 벽에 장착 되어 당분이 들어 오게 하는 문(glucose transporter)이 각각 따로 포장되어 목적지로 운반 된다. 이렇게 목적지 근처에 옮겨진 생체 물품들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확한 순간에 사용 되는데, 최종 목적지에는 각각의 꾸러미들에 붙어 있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기능을 가진 장치가 있어 언제나 실수 없이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장소에 생체 물품들이 전달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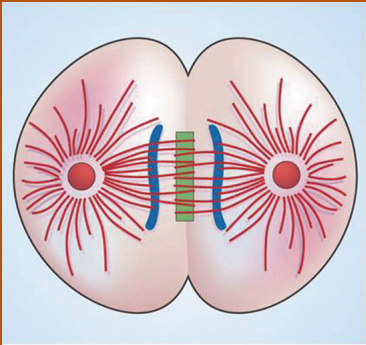


그림 1. 미세소관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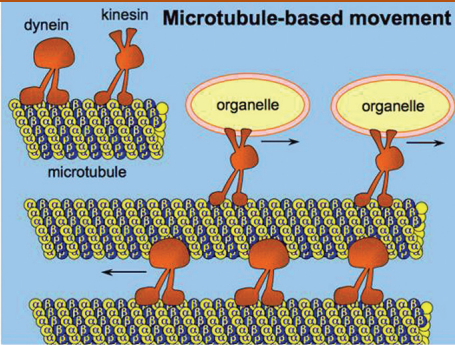


그림 2. 미세소관 위의 생체 트럭들의 예

세포를 한 국가에 비유한다면, 세포 속에는 세포막과 같은 막으로 싸여 있는 여러 개의 도시들이 존재하고 이 도시들간에 혹은 다른 국가와 물건들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흥내 낼 수 없이 효과적인 도로망과 물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조세계를 관찰해 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이 세포 속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정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놀라운 세포의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세포가 저절로 되었다거나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강력한 무신론의 믿음의 표현일 뿐이다. 과학적인 논리를 적용하면, 세포는 자연적으로 생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적인 존재가 만든 것이란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과학만으로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참고하면 너무나도 쉽게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창조자를 알게 될 때 그분의 형상인 사람이 누구인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 창조과학 탐사여행

### TIM 탐사여행

지난 11월 15-18일 두란노 국제 선교회(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담당목사: 도옥환) 팀들이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본부사역하는 선교사, 장로, 집사, 본부간사 등으로 구성되어 나홀간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교 현장이나 본부에서나 모두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인솔하신 도옥환 목사님께서서는 LA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실 때에도 탐사여행을 열어주시고 활용하여 주셨는데, 이번에 TIM에도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 첫 중국인 탐사여행

지난 11월 22-24일 첫 중국인 탐사여행을 마쳤습니다. 대부분이 본토에서 왔으며, 참석자 중 약 1/3은 비기독교인 이었습니다. 2/3을 차지했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일방적으로 받아온 진화론 교육 때문에 판단과 행동은 여전히 진화론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ITCS

창조과학선교회의 인턴쉽(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Science; ITCS) 과정은 창조과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전문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집중 교육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쉽 지원 과정, 생활, 그리고 비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최우성 박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ITCS-1: 매 년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기간 중에 열림(각 10주 과정)
- 제 4 기 ITCS-1: 2010년 12월 20일 - 2011년 2월 25일
- 제 5 기 ITCS-1: 2011년 여름 방학 예정
- 문의 사항: 213-381-1390/ 최우성 박사 (mailforwschoi@gmail.com)

니다. 중국의 교회가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지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공산주의 뿌리인 진화론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래지 않아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면에서 타락의 일로로 가고 있는 중국의 현실이 진화론적 사고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 큰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이 미국에 온 이래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으며, 지난 한 세기를 이끌어온 미국의 힘이 어디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참석자들은 이 탐사여행이 매년 지속되기를 바랐으며, 실제로 자신들이 그만한 홍보를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를 후원했던 교회의 담임목사님도 매년 중국인들을 위한 탐사여행을 후원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 제 12차 유학생 탐사여행 모집

유학생 탐사여행은 한국 온누리교회(담임: 하용조 목사)와 일반인 온누리교회가 후원하며,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에 있는 학생과 배우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2011년 6월 27일 - 29일(월 - 수)
- 경유지: 모하비 사막, 세도나,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 인 도: 이재만 선교사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 참가 대상 및 참가비
  - 유학생 : \$90.00
  - 유학생 가족: \$300.00
- 문의 사항: 213-381-1390; hisark@gmail.com





브라이스 캐년에서 TIM 탐사여행

지난 10년간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미주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2세 영어권, 한국, 일본뿐 아니라 최근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며 세계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사역자 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역자들이 길러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 김명도 박사 초청 언어학 특강

창조과학선교회 사역자와 인턴들은 지난 11월 12일 언어학 박사이신 김명도 박사님 내외분을 초청하여 본 사무실에서 성경과 언어학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오전과 오후 5시간에 걸쳐, 언어의 기원, 바벨탑, 번역, 읍기에 대한 강의와 질의 응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명도 박사님께서는 1998년 창조과학선교회 서부지부가 설립하며 시작한 첫 컨퍼런스에 '바벨탑과 언어의 혼잡'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도 했는데, 현재 J국에서 선교사로 헌신 중입니다.

### 제 3회 신학생 탐사여행

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D.Min, Th.M, Ph.D 과정에 있는 Fuller 신학생을 우선으로 하며, ANC 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후원합니다.

- 일 시 : 2011년 6월 20일 - 22일 (월 - 수)
- 경유지 : 모하비 사막, 세도나,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 인 도 : 이재만 선교사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 참가 대상 및 참가비
  - 신학생(D.Min, Th.M, Ph.D): \$90.00
  - 신학생 가족 : \$290.00 (부모와 함께 같은 방을 쓰는 초등학교 이상 자녀는 \$260.00이며, 초등학교 미만은 \$100.00)
- 문의 사항 : 213-381-1390; hisark@gmail.com



## 제 19기 창조과학학교

지난 2010년 1월 22일 16기 창조과학학교를 개설한 새한교회(담임목사: 정세훈)는 정확히 1년 뒤인 오는 1월 21일부터 본 교회로는 두 번째인 제 19기 창조과학학교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창조과학학교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매 주 1회 2 시간씩 10 주간 진행 됩니다. 진화론 같은 자연주의 사상 때문에 생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많은 의심을 해결할 뿐 아니라, 진화론 때문에 가려졌던 복음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갖게 해 줍니다.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하도록 적극 후원 하시겠다고 합니다. 새한교회 주소는 2531 W. Pico Bl., Los Angeles입니다. 매 년 한 두 차례 있는 기회이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창조과학선교회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신학교 강의

지난 수 년간 매 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월드미션대학교의 겨울학기 강의가 12월 13일부터 2주간 진행 됩니다. 처음으로 이재만 선교사, 최우성 박사, 최태현 집사가 한 팀이 되어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 됩니다. 많은 한인 크리스천 대학들에서 창조과학을 정규 학과에 포함하여 가르치게 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의 창조 사실에서부터 시작한 온전한 지식을 갖춘 교회의 일꾼들이 더 많이 배출 되기를 바랍니다.

2010 베데스다 대학교의 가을학기 강의(강사: 최우성 박사)는 12월 14일에 종료 됩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성경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유지 발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모집 탐사여행

올 해 200 회를 넘기게 될 창조과학탐사여행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참가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탐사여행이 교회나 단체별로 떠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속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는 참석하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만을 위한 창조과학탐사여행을 준비 하였습니다. 선착순 50명까지 예약 받습니다.

- 일 시: 2011년 7월 18일-20일(월-수)
- 경유지: 모하비 사막, 세도나,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 인 도: 이재만 선교사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 참가 대상 및 참가비

누구나 참석 가능: \$290.00 (부모와 함께 같은 방을 쓰는 초등학생 이상 자녀는 \$260.00이며, 초등학생 미만은 \$100.00)

- 문의 사항: 213-381-1390; hisark@gmail.com

# 자연, 자연주의, 성경



성경을 펼쳐보자. 그리고 “자연”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자.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서 자연 혹은 *nature* 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세상 만물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그 대신 자연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대부분 쓰인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자연은 성경에서는 “피조물”로 일컬어진다.

이 차이는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그 호칭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가 만물을 “자연”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저절로 그렇게 된 것” 혹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말의 숨은 의미는 바로 창조자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 자체가 외부의 개입이 필요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구름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렇다면 구름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필요 없다 (과연 그런가? 왕상 18장을 보라).

둘째 우리가 어떤 사물이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과정 – 우주의 형성과정, 지층의 형성과정, 생물의 진화과정 – 에 집중하게 된다. 꽃이 저절로 피는 것이라면 사람은 당연히 어떤 조건들이 맞을 때 꽃이 알아서 피게 되는지 궁금해진다. 어떤 외부의 개입이 없을 때, 도대체 그랜드캐년의 지층들은 어떻게 저절로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진다. 사실 이러한 호기심은 과학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정작 출발점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거나 무시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 혹은, 출발점은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의 연장선에 놓인, 붙잡을 수 없는 어떤 신비가 되어버린다. 바로 이러한 사고를 근대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서구의 자연주의, 보다 정확히 말해서 무신론적 자연주의는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의 형성과정을 오늘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자연과정으로부터 밝히려는 지적 활동이다. 과정은 보통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연과정을 관찰하면서 더 오래된 자연과정을 알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고는 “동일과정설”로 잘 알려져 있다. 비록 최근에는 단순한 동일과정설보다는 동일과정과 격변이 결합된 자연주의 사고가 나오고 있지만, 그 본질은 결국 오늘날의 과정을 오랜 옛날까지 늘려보는 것이다.

자연주의가 지적 활동(과학)을 지배하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세상은 법칙과 변화

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달은 날마다 변화하지만 한 달로 보면 늘 같다. 인종은 다양하지만 결국 모두 같은 인류이다. 박테리아는 하나같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성을 지닌 인간은 이러한 법칙과 변화의 하모니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굳이 그 창조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질문은 넘치고 밝혀야 할 자연과정은 무궁무진하다. 그 과정에 갑작스레 개입하는 창조자는 불편하기까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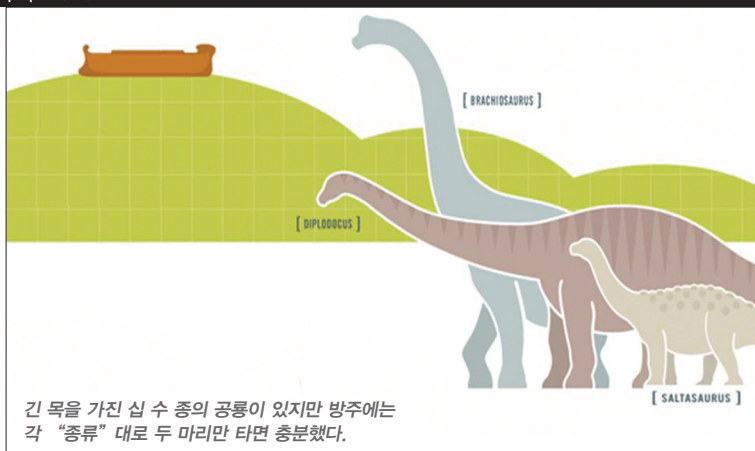
서구의 자연주의는 처음에는 창조자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연주의의 성숙은 하나님을 “법칙” 안에 가두는 이신론으로 이어졌고, 이내 창조주를 완전히 배제하는 철학적 자연주의 나아가 무신론적 자연주의로 이어졌다. 창조주를 완전히 배제한 순간, 이제 자연은 자연 그 자체만으로 설명되어야 했다. 마치 어떤 사람의 부모를 배제하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과 출생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기원에 대한 의문을 오늘날의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풀려는 우리 시대의 시도는 이러한 자연주의와 무신론의 혼합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창조주를 배제하는 자연주의는 본질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만물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은 다르다. 모든 생명은 세포 분열로부터 성장한다. 그러니 그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에는 한 세포였을 거라 추론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관찰된다. 그러나 그 최초의 한 세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거슬러올라가는 과정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대상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시작이라는 것이다. 시작은 그 이전 과정이 없으니 과정적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오늘날의 무신론적 자연주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과학으로 여기지 않으려 한다.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우월한 것은 진화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된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창조도 과학적으로 설명해보고 싶어진다. 하지만 창조를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창조는 하나님께서 6일동안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창 1) 과정이 있을 수 없다. 그 결과만 있을 따름이다. 무신론적 자연주의는 이 문제를 외면한다. 셋째, 무신론적 자연주의는 도덕의 원천마저도 자연으로부터 도출하려 한다. ‘자연 과정을 보라. 이것이 자연법칙 아닌가. 그렇다면 사람도 그에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무신론적 자연주의의 도덕 근거이다. 불행하게도 자연은—정확히 말하면 피조물은—도덕의 궁극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롬 1:20), 어떤 자연법들은 성경의 계시와 일치하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이 만물은 동시에 타락했다는 사실(창 3)을 잊어서는 안된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적절한 지식을 전해주고 있다. 첫째,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고, 이 세상의 시작은 창조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모든 과정은 창조주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 둘째, 이 세상은 저절로 존재해온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 세상은 인간의 탐구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창 1:28). 인간의 탐구활동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본성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오늘날 많은 실험과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작업이다.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올바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잠 9:10)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추구할 때 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최태현 강사  
행정학



## 방주 속의 공룡과 한 혈통

공룡은 진화의 아이콘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 홍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생물이기도 하다. 공룡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살펴본다.

### 1. 공룡이 정말로 사람들과 동시대에 살았을까?

창세기 1장은 땅 위의 모든 짐승들이 아담과 같은 날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룡들은 땅위의 짐승이므로 성경에 따르자면 이들은 아담과 같은 여섯째 날 창조되었으며 아담의 후손들과 함께 살았다.

### 2. 공룡이 어떻게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

노아는 코로 숨쉬는 모든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2마리씩 방주에 실었다. 주목할 것은 방주에 실린 동물들은 “종(species)”이 아니라 “종류(kinds)”라는 사실이다. 수 천 종의 공룡이 발견되었지만 “과” 수준에서는 50 가지 정도의 공룡들만이 발견되었다. 성경의 “종류”는 오늘날 대략 “과” 수준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50 종류 그리고 100마리 정도의 공룡만 방주에 타면 되었다. (다른 예를 들면, 현재 다양한 종의 개가 존재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개 과”이다.)

거대한 공룡이 어떻게 방주에 탔을지도 궁금증 가운데 하나이다. 몇몇 거대한 공룡들이 유명하긴 하지만, 공룡의 크기는 평균으로 보면 양이나 들소(bison) 정도의 크기이다. 게다가 거대한 공룡도 어릴 때는 분명 충분히 작았다. 하나님께서 어린 것들로 방주에 인도하셨을 것이다.



### 3. 공룡이 방주를 통해 살아남았다면, 오늘날 왜 안 보이는가?

여러 종의 생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오늘날에도 멸종을 겪고 있다. 노아 홍수 이후 환경과 식생은 홍수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많은 공룡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공룡들은 홍수 이후에도 오래도록 살아남아 사람들에게 용으로 알려졌을 가능성이다. 용 전설은 지구상 어디에나 있다.

### 4.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종”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까다로운 질문이다. 그것은 크리스천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면 모든 것은 쉬워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 1)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26-28)
- 2) 하와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이다 (창세기 3:20)
- 3) 아담은 첫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45)
- 4) 바벨에서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형성되었다 (창세기 11:9)
- 5) 우리는 모두 한 혈통 즉 한 인종이다 (사도행전 17:26)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에서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이다

서로 다른 피부색이나 약간 다른 유전 형질은 매우 사소한 것이다. 그것으로는 다른 “인종”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갈색 색소를 지니고 있다 (흰 종이에 손을 올려놓아 보라. 누구도 말 그대로 희거나 검거나 붉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피부색을 지닌 민족들이 생겼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께 반역하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각 민족들을 전 지구상에 흩어지게 하셨던 사건이다. 바벨탑 사건 이후 민족들이 흩어질 때, 각 민족들은 구별되는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흩어지면서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간의 분리와 환경적 차이의 영향으로, 당시와 같은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는 사소한 유전적 차이가 불과 몇 세대만에 생길 수 있다. 이는 모든 생물학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를 부끄러워 할 이유가 없다.



## 두란노 해외 선교회 감사여행

(11/15 - 11/18, 2010)

세 번째 함께 한 감사여행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은혜와 감동, 진리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고 진리에 기초한 패러다임이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 도육환 목사,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 본부

진화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음에도 갇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자각하지 못하고 신앙과 진화를 타협하면서 두루뭇실 살았던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던 시간입니다. - 서훈주 간사,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번 감사여행은 저의 생애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창조과학 사역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윤종희 집사, 두란노 해외선교회

하나님을 멋있는 디자이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순간 믿지 않았을 때 듣고 싶었던 내용을 듣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 김화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부르심을 느끼며 감격찬 시간이었습니다. - 이경숙 선교사

창조주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감동이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며, 이 명백한 사실을 똑똑한 바보들을 향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경아, 서빙고 온누리교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사람을 만드신 것을 이미 믿고 있는데 왜 굳이 그랜드캐년까지 가서 봐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창조는 어린 시절부터 주입되어 온 진화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허은아, 서빙고 온누리교회 2000 선교본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진리나 신비들이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 김은경 간사, 서빙고 온누리교회 2000 선교본부

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제 손안에 있다는 기적에, 그리고 그 기적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선교사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임현주 선교사, 두란노 해외선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사단의 교묘한 거짓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크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대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2박 3일 일정의 탐사여행 기간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말씀으로만 아닌 가슴으로 느끼며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 이은혜, 김현철 선교사,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멋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전에는 창조과학회 사역을 잘 몰랐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 김신화 간사, 두란노 해외선교회

선교 신학을 하면서 성경이 한 점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 들이는 책들과 교수님들이 많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창조과학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과학을 가지고 최전방에 서서 선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저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 이은정 선교사, 두란노 해외 선교회

성경을 나름대로 보아 왔고 믿어 왔던 저에게 성경을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 또한 사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 허만호 간사, 서빙고 온누리교회, 2000 선교본부

인본주의와 자연주의에 영향을 받고 살아온 인생... 얼마나 많이 무의식중에 있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 내 안의 새로운 영역의 열정을 발견하는 시간. - 김진웅 간사, 두란노 해외 선교회

놀라운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 배우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이제 자신있게 자녀를 창조론에 근거하여 양육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강일영, 고영주 선교사, 두란노 해외 선교회

이 여정이 끝나가는 지금... 눈으로 보았던 지층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귀로 들었던 많은 사실들이 이제 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더욱 가까이 느껴집니다. - 김화영, 연세대 학교

강의와 눈으로 직접 보는 그랜드캐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제대로 느낀 여행! 이 감동과 은혜를 한국에 돌아가서 전해야겠습니다. - 장주경, 연세대 학교

생생한 역사 현장을 목격하고 기분 좋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정치, 경관으로서가 아니라 증거의 하나로 그랜드캐년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신소라, 연세대학교

내년 여름, 두 자녀가 도전 받을 탐사여행이 더욱 기대됩니다. - 문경숙 집사, 서빙고 온누리교회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탐사여행을 통해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 드릴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돌아갑니다. - 김영환 집사, 서빙고 온누리교회, 2000선교위원

● 지면상 실리지 않거나 편집되지 않은 간증 전문은 홈 페이지 “간증”을 클릭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역일정 SCHEDULE

### 2011년 ACT Schedule

- 
- 1/2      인랜드 순복음교회 신년 부흥회 (이재만, 213-381-1390), Inland, CA
  - 1/3-5   창조과학 탐사여행 (11차 유학생, 213-381-1390)
  - 1/21    창조과학학교 (새한교회, 213-381-1390), LA, CA
  - 1/31-2/4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팀, 213-381-1390)
  
  - 2/9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Westminster, CA
  - 2/16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Westminster, CA
  - 2/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의사팀, 213-381-1390)
  - 2/23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Westminster, CA
  - 2/26    새생명비전교회 (이재만, 213-381-1390), Los Angeles, CA
  - 2/28-3/4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생터 성경사역원)
  
  - 3/4-5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이재만, 512-454-1727), TX
  - 3/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House of Siloam, 951-245-9500)
  - 3/13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562-653-0168), Cerritos, CA
  - 3/17    서울 장신대학교 채플 (이재만, 한국)
  - 3/21-31   아키타, 아오모리, 센다이, 나가노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 4/16    산호세 임마누엘장로교회 (이재만, 김선옥, 김낙경), San Jose, CA
  - 4/18-21   창조과학 탐사여행 (LV 순복음교회 EM, 213-381-1390)
  - 4/25-28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 동산교회)
  - 4/29-5/1   그랜뷰 침례교회 (이재만)
  
  - 5/2-8    창조과학 탐사여행 (전주 비전대학교)
  - 5/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213-446-2821)
  
  - 6/16-18   빙하시대 탐사여행 (개인 모집, 213-381-1390)
  - 6/20-22   창조과학 탐사여행 (Fuller 신학생, 213-381-1390)
  - 6/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12차 유학생, 213-381-1390)
  
  - 7/4-6    창조과학 탐사여행 (사랑의 빛 선교교회 청년부, 213-381-1390)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http://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http://www.HisArk.com) / [hisark@gmail.com](mailto:hisark@gmail.com)